

제4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2. 2. 2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2월 21일(월) 16:00~17:56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 개회를 선언함.

1) 안전 심의

□ 의결안건 제13호 『(주)셀트리온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4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5호 『(주)셀트리온제약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일괄 재상정함.

▷ 첫 번째 진술인(제13호 관련)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당시 회사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회사가 기말시점에 계상한 트룩시마 1,200억 원 매출 거래는 매우 엄중하였던바 저희 감사인은 회사와의 고객관계 단절을 각오하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인으로서의 소임을 다 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림. 이슈(issue)가 된 동 트룩시마 매출은 2013년 12월31일에 회사 전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거래의 거래에 해당함. 따라서 감사인으로서 당연히 특별한 의구심

을 가지고 감사에 임할 수밖에 없었음. 감사인의 엄격한 감사절차 적용 결과 동 제품은 2공장에서 2013년 4분기말에 첫 생산 및 인도된 제품으로써 제조소 변경에 해당되는 바, ICH Guideline에 따라 거쳐야 하는 최소 6개월간의 추가 안정성 검사가 이행되지 못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음. 그런데 제조소 변경이 발생한 제품의 반품률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서 저희 감사인은 실질적으로 반품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은 ICH Guideline에 따라 6개월 간의 추가 안정성검사가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음. 동 트룩시마 거래는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회사에 매출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회사는 2014년 3월초에 이를 수용하여 매출을 수정했던 것임. 이와 같이 동 트룩시마 거래는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정당한 근거 없이 내린 결론으로 추정되는 감독기관의 지적은 철회되어야 할 것임. 감사조서에 수정분개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감리 문답과정에서 회사가 수정분개와 수정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하였다는 진술의견 및 조회서 금액과 일자에 대한 추가설명이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회사가 매출이연처리를 주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사전재무제표 제출 의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3회계연도까지만 하더라도 감사인은 감사효율화 차원에서 수정권고한 사항이 반영된 후 재무제표를 제시 받아 관련수정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조서화하기도 하였음. 그리고 감사인으로부터 수정권고를 받은 회사가 스스로 수정분개를 하고 수정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하였다는 것은 관련 감사규정을

적절히 준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그리고 조회서상 수기기재된 거래금액은 수정사항 반영전의 금액으로서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주)셀트리온의 회계처리가 자신들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연한 것임. 따라서 조회금액 차이에 대한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주)셀트리온헬스케어는 1차 조회서 확인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재차 확인해 준 점을 감안하여 2차 조회서일자는 1차 조회서일자와 같은 일자를 기재하여 준 것으로 서면확인되었음.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2차 조회서를 허위로 판단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임. 감독기관은 또 감사인이 회사의 매출 이연처리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슈(issue)가 된 트룩시마 매출 1,200억 원은 12월 마지막 날에 일시에 매출로 계상되었던 거액의 거래로서 감사인을 극도로 긴장시켰음. 감사위험(risk)보다 고객관계를 더 우선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의 회계처리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림. 다음에는 회사가 매출 또는 이익 과소계상에 대한 동기가 있어서 트룩시마 매출을 이연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당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초기 형성단계인데다가 회사의 투자와 사업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회사 주식은 공모도 거래에 대하여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회사의 주식이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회사의 주가 하락시 추가담보 제공 요구 가능성이 있었음. 이러한 상황 하에 있는 회사는 매출 또는 이익을 축소하기 보다는 매출액 등을 적극적으로 계상할 유인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음.

만약 당시 회사가 매출 또는 이익 과소계상 동기가 있었다면 2013년 11월 트룩시마 1,200억 원 계약 공시, 12월말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련 VAT신고 납부 행위 등을 아예 처음부터 수행하지 않았을 것임. 다음은 개발비 관련 지적사항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개발비 관련 감독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품의 개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참고하여 회사가 수립한 회계정책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고 일관되게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는 모두 상업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2012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심사감리를 받은 결과 개발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감독기관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 (위원) 결국에는 누가 먼저 수정을 제안했느냐 얘기인데 다만 감사인이 회사에 대해서 매출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한 감사조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인지?

▶ (진술인) 맞음. 조서에는 그런 언급이 없음.

- (위원) 먼저 매출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한 주체는 ○○회계법인이 맞다는 말씀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런데 문답서를 보면 “회사가 추후 발견하여 회사제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드 철수

이후에 해당 수정사항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본인이 답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제가 회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문답을 진행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당시에 12월말에 계상한 트룩시마 매출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해 주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감사팀뿐만 아니라 법인 전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왔음. 필드(field) 철수하고 나서 주도적으로 회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제조소 변경에 따른 수익인식요건에 만족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셀트리온에 수정을 요구했음.

- (보고자) 문답은 작년 3월에 이루어졌으며 문답내용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 회계사나 회사가 그간 답변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문답내용이 사실과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음.

○ (위원)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재무제표를 권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도 감사조서에 표시가 안 되는지?

▶ (진술인) 수정권고는 당연히 저희가 하고 그 수정분개를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것은 회사의 몫임. 최초 재무제표에서 출발해서 회사가 제시한 수정분개를 반영하면 사후보완(follow up)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수정 후 재무제표를 최초로 제시받은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였음. 그러다 보면 그 과정이 생략되는 것임.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허용되는 관행이었고 회계감사기준 위탁 제개정기관을 통해 확인된 바 있음.

- (보고자) 감사기준상에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조서화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며, 그 관행이라고 함이 어떠한 감사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는 것을 회신한 내용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용인할 수 없음. 그리고 감사조서에서도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조서화를 하고 지배기구커뮤니케이션 등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절차들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감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음.
- (보고자) 저희는 이연을 결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이 판단을 감사인이 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 ○○회계법인이 비전문가로서 그리고 관련된 증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ICH 규정을 들어서 감사인이 제시했다는 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증거도 없음.
- (위원) 매출액이 3월에 수정결정이 되었는데 조회서는 1월27일로 보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 (진술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입장에서는 1차 조회서에서 확인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2차 조회서에서 확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인감을 새로 찍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1차 조회서 확인할 때 이용했던 인감 날인대장상의 일자인 1월27일자를 적어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음.

○ (위원) 그렇다면 1월27일은 1차 조회서 확인해 준 날짜와 동일하다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통상적으로 조회서가 바뀌면 기존에 있었던 조회서는 폐기를 함.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차 조회서는 저희들이 조서화하지 못했음.

○ (위원) 그리고 채권채무조회서 양식이 일반적인 ○○회계법인의 양식과 다르다고 금감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 (진술인) (주)셀트리온 조회서는 일반적인 채권채무조회서 양식임.

○ (위원) 결론적으로 6개월 안정성 자료 제출을 받아서 매출을 이연시키는 회계처리가 올바른 회계처리냐에 대해서 ○○회계법인이 어떤 확신을 가졌는지?

▶ (진술인) 아시다시피 12월말일에 거액의 매출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생산부서와 연구부서에 이의제기(challenge)를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 확인을 했음.

○ (위원) 거기에 대한 조서가 있는지?

▶ (진술인) ICH Guideline 관련 규정이 언급되어 있음.

○ (위원) 조서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미허가의 경우에도 6개월의 안정성 기간이 필요한 것이 그 규정에 나와 있는지?

▶ (진술인) 개발 중인 제품은 물론이고 원재료의 변경, 생산 시설의 변경 등 포괄적으로 안정성 테스트 기간이 필요함.

○ (위원) ICH 규정에 의해서 미허가 제품의 경우에도 6개월 이연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계법인이 엄청 고민했다고 하셨는데 그 의사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듯 보임. 조서 부분은 없고 재고자산 (주)셀트리온헬스케어도 계상하고 있어서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 같기는 한 것 같음.

- (보고자) ICH 규정에 6개월 이연이 필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리위 논의과정에서 회사도 인정을 했던 부분임. 그리고 이 부분의 6개월 규정은 미허가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할 의무가 전혀 없고 적용을 한 회사도 없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시적인 확인을 ○○회계법인에서 했었다면 독립적인 논의문서나 검토 문서가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함.

▶ (진술인) 12월말에 거액의 매출액을 계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주)셀트리온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했음. 그러나 (주)셀트리온에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당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수익인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한 것임.

▷ 첫 번째 진술인(제13호 관련)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제13호 관련)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4가지가 지적이 되었음. 먼저, 트룩시마 교환거래으로 쟁점은 판매불가로 판단되어서 교환 당시에 전액 감액했던 제품을 대체용으로 사용하며 환입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인데 채고자산기준서에는 사실 판매목적 자산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언급이 없음. 그래서 일단 감액이 되면 판매가 다시 가능하지 않는 한 환입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보면 ‘자산은 경제적 자원이고, 경제적 자원은 현금유입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유출의 회피를 통해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220C를 투입하게 됨으로써 현금유출의 회피, 230C의 투입을 회피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제적 효익이고 그렇다면 경제적 자원이고 자산이다, 자산이면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환입을 해야 된다고 보았음. ○○ Global의 기준서 해석하는 팀에서도 채고자산을 감액했다고 하더라도 판매가치가 아니라 다른 용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투입이 되면 자산이고 환입해야 된다는 판단을 확인을 했음. 그다음에

○○○의 Global Manual을 보더라도 NRV를 감액할 때는 판매가치 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적 용도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음. 그래서 저희는 개념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환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금감원의 지적은 환입을 통해서 개발비가 과대계상 되다보니까 이것을 ‘중과실’로 처분을 하셨음. 그런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제나 실질을 고려했었을 때 ‘중과실’ 처분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 다음 특수관계자 주식 기재에 대한 판단임. 판매불가재고와 판매가능재고가 교환이 되어서 반품이 된 상황에서 주식 기재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거래에 대해 주식 기재를 하더라도 230C의 추가적인 제공을 매출로 판단하지 않았고 돌려받은 220C 반품을 매출취소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함. 다음은 허주마 교환거래에 관련된 사항임. 이것은 상업적 실질이 없는 동종자산의 교환이므로 주식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음. 이 건은 재무제표에 분개 자체가 들어간 바가 없고, 재고수불부 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표시만 했고 재고수불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가로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표현하려고 해도 원가로 밖에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운송밸리데이션에 대한 개발비를 언제까지 인식이 가능하느냐는 측면에 있어서는 제약산업의 개발비 인식 지침(Guideline)을 보시면 품목허가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도 개발비로 자산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적을 받지 않은 램시마의 경우에도 유럽 허가 시점 이후에 발생한 운송밸리데이션을 개발비로 자산화 했음. 저희는 유럽

허가 그다음에 미국 허가가 날 때까지 발생하는 운송밸리레이션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개발비라고 보았음. 특히, 이 전에 있어서 위법동기를 전문가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는 것으로 보아서 ‘중과실’ 처분은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림. 다음 수익인식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림. ○○ Global 입장은 이것이 협업 약정은 아니기 때문에 (주)셀트리온헬스케어와 (주)셀트리온은 고객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고 답이 왔음. IFRS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원칙중심이기 때문에 그 정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며, 이런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과한 처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개발비는 2018년도 금감원의 지침(Guideline)을 준수하기 위해서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림.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이미 확보가 된 사항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림.

- (위원) 개발비 관련해서 220C 투입으로 230C 투입이 감소되어 판매가치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익을 고려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답서에 보면 실제로 220C가 판매불가능한 것도 모르신 것으로 되어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림.

- ▶ (진술인) 저희가 220C는 임상과정에서 230C로 바뀌었기 때문에 220C의 판매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

있음. 220C로 교환받은 것은 전액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보고자) 220C 같은 경우는 전액 평가손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인지하였다고 했음. 그러나 허쥬마 관련해서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

▶ (진술인) 허쥬마와 관련된 부분은 회사가 교환했던 목적이 기존에 오래된 재고를 새로 만든 재고로 교환하는 목적이었고 유효기간 경과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음. 다만, DS가 유효기간이 경과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 DP로 전환해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2016년말에도 재고자산의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음.

- (위원) 특관자 공시와 관련되어서 검토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 (진술인) 2017년도와 2018년도 특수관계자 조서에 허쥬마 교환에 대해서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했음. 해당 교환은 매출로 인식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적 실질이 없고,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이고, 기존에 매출한 것에 대한 부수적인 거래라고 판단해서 해당되는 주석은 공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

- (위원)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매출과 관련해서 지금 양사가 4

가지 유형을 모두 공유하면 고객이 아니라고 되어 있음. 제
품개발위험 공유하는지?

- (보고자) 공유하고 있음.

▶ (진술인)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 (위원) 그다음에 제조위험 공유하는지?

- (보고자) 공유하고 있음.

▶ (진술인) 제조위험은 (주)셀트리온에 있다고 생각하며 공유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함.

○ (위원) 재고위험은 공유하는지?

- (보고자) 공유하고 있음.

▶ (진술인) 재고위험은 가격하락위험이 차기년도까지 제한적
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유하기 보다는 변동대가
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위원) 매출채권 회수 위험은 공유하는지?

- (보고자) 공유하고 있음.

▶ (진술인) 매출채권 회수 위험은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담

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함.

- (위원) 금감원에서는 2018년부터 이것을 매출로 인식하지 말라는 것이고, 2017년까지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 매출하는 것을 왜 인정을 해 주는지?
- (보고자) 기준적인 부분도 고객의 개념이 새로 들어왔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초에 기존 계약상 의무와 권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추가적인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기타 추가용역 제공이라든지,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추가적인 재고위험을 계상해야 되는 시점에서 (주)셀트리온이 지원했던 행위들이 2018년초, 2019년, 굉장히 많이 일어났음. 그래서 최초의 계약과 다르게 (주)셀트리온이 재고자산위험을 공유하는 행위(action)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음. 또 한 가지는 정산구조가 바뀌어서 2017년까지는 그 다음해의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에서 2018년부터는 해당 기간의 실제 판매가격을 가지고 해당 연도의 매출을 조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 그래서 2018년 이후부터는 재고위험이 넘어가지 않아 통제가 이전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음.
- (위원) 회사의 수익인식기준을 금감원이 광범위(broad)하게 판단해서 인식기준을 바꾸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음. 조금 세밀하게 그것을 확인(check) 해보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충분히 논의되어야 됨. 그다음에 개발비가 금액적으로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회계학 관점에서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음. 우리가 실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내면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

우에는 임상1상 개시 시점 이후 지출은 개발비로 자산화하고 그 이전 것은 안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모호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임.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견은 어떠한지?

▶ (진술인) 저희는 임상허가 승인시점 이후에 발생(incur)하는 행위일 때 개발비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음. 또 하나 2018년에 금감원에서 지침(Guideline)이 나왔을 때 지침(Guideline)에 따른다면 비조치(No action)이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었음. 감리과정에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확보된 시점부터 개발비로 인식했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회사는 동등성 확보 시점 이후에 모든 개발에 성공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틀리지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보고자) 회사는 임상물질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확보되기 전에 생산한 것을 일시에 자산화하고 있음.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 생산금액의 10% 정도만 임상물질로 사용함.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단계에서 50% 이상의 임상물질이 사용됨. 이렇게 기술적 실현 가능성 확보 이전에 사용되는 양이 절대적인데도 그것들을 그냥 단순히 임상물질용 생산이라는 명분 하나로 자산화를 하고 있음. 그래서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임.

▷ 두 번째 진술인(제13호 관련)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제15호 관련)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재고자산평가손실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당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회사가 제시한 재고자산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회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회사는 허쥬마의 허가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2016년말 시점에 허쥬마 60개월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향후 84개월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목표로 한 안정성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원료의약품의 완제의약품 전환 후 허가기간 연장하는 방법 등을 통해 허쥬마의 허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음. 당 감사인은 이러한 회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고자산평가 관련 회계정책 및 재고자산 평가 내역, 허쥬마 60개월 안정성 데이터, 84개월 안정성 테스트 계획, 그리고 그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허쥬마 1배치의 85개월 안정성 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인터뷰도 수행하였음. 의약품의 경우 안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로 허가기간 연장이 가능한 점,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허쥬마 60개월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84개월까지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안정성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실현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1배치의 85개월 안정성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었음. 또한,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승인절차는 회사의 안정성 시험 및 평가결과에 근거하

여 이루어지며 회사는 과거 경험상 회사의 안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왔음.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회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다음 지적사항으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말씀드리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허쥬마 재고를 정상적인 재고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교환거래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실질에 대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아 주식 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당 감사인은 회사의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현황 및 거래내역, 재고교환 요청 및 승인문서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수행하였음. 운송밸리데이션 목적의 재고교환임을 확인하기 위해 재고교환 요청문서 등을 확인하였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어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라는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위원) 재고자산 안정성 평가자료와 관련되어서 조서화한 내용이 있는지?

▶ (진술인) 안정성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조서는 없음. 다만, 손상이 아니라는 검토 결과만 조서에 기술하고 있음.

○ (위원) 감사하는 시점에 허쥬마에 대해서 100A, 200A를 구별 했었는지?

▶ (진술인) 감사 당시에는 제조회사의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

지는 않았음.

- (위원) ○○회계법인 쪽에서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사업무 지시서를 발송했으면 조금 더 자세한 재고자산 평가가 가능했었는지?

▶ (진술인) 당시로 돌아가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생각함.

▷ 세 번째 진술인(제15호 관련)이 퇴장함.

- 각각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7시 56분 폐회)